

# 고려대학교 학생에서의 '암에 관한 인식도' 설문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종양혈액내과

최인근 · 서희연 · 설혜령 · 최종권 · 성화정 · 박경화 · 윤소영  
오상철 · 서재홍 · 최철원 · 김병수 · 신상원 · 김열홍 · 김준석

## Abstract

### A Survey of Cancer Perception in the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In Keun Choi, M.D., Hee Yun Seo, M.D., Hyeryoung Sul, M.D.,  
Jong Gwon Choi, M.D., Hwa Jung Sung, M.D., Kyong Hwa Park, M.D.,  
So Young Yoon, M.D., Sang Cheul Oh, M.D., Jae Hong Seo, M.D.,  
Chul Won Choi, M.D., Byung Soo Kim, M.D., Sang Won Shin, M.D.,  
Yeul Hong Kim, M.D., and Jun Suk Kim, M.D.

*Division of Oncology and Hemat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perception of cancer in the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Methods:** 1,000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were surveyed by questionnaire from March 2001 to September 2002. Nine hundred ninety two complete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analysis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701 students (76.1%) replied that cancer is a curable disease. However,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cancer treatment with modern clinical medicine was low (37.5%). Moreover, they thought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efficacy of treatment by chemotherapy, alternative medicine, or dietary modification. But, the positive evalua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chemotherapy in the students who had cancer patients in their families was higher than that in the students without the experience of cancer patients in their families. Six hundred ninety four students (75.3%) replied positively for euthanasia in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y thought that the dignity and the right of the patients were the most important poin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making the decision of euthanasia.

**Conclusions:** The credibility to modern clinical medicine for cancer treatment was relatively low in the students of Korea University who had no cancer patients in their families. So, further studies and trials will be warranted to evaluate the causes of these results and improve the credibility of modern clinical medicine for cancer treatment in the general population.

**Key Words:** Cancer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s

## 서 론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의 빈도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암은 현재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1]. 한편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 치료는 치료율의 증가(전체 암의 5년 생존율: 41.4%, 1995년 한국중앙 암 등록 본부), 환자 생존기간의 증가, 조기발견으로 인한 완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2]. 또한 완치나 생명의 연장이 어려운 진행성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화학요법을 통하여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3, 4]. 그런데, 암 및 암에 대한 현대의학적 치료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현재 어떠한지를 연구한 보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저자 등은 우리나라에서 지식층으로 대변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일반인들에서의 '암에 관한 인식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 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1,000명의 고려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준비된 설문지를 교양강좌 강의 시간에 출석한 대학생들 전원에게 배부한 뒤 조사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들을 제외하고 성실하게 답한 설문지 총 922부를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통계처리

학생들의 성별, 출신지역, 가족 중 암 환자의 존

재경험 여부, 생활습관(흡연력, 음주력, 규칙적인 운동 등) 등을 조사하였고, 이들에 따른 암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암에 대한 인식 정도는 암과 생활습관과의 관계, 암의 예방, 현대의학과 대체의학의 암 치료 효과 비교, 암의 완치 가능 여부,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안락사를 포함한 말기 암 환자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하였다. 통계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 Chi-square ( $\chi^2$ )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하게 판정하였고 0.05~0.1은 경계적 유의성으로 정의하였다.

## 결 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 성비, 출신 지역, 가까운 주위친지 중 암 환자의 유무 등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암은 치료 가능한 질병인가?'의 질문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Fig. 1). 그러나, 가족 중 암 환자가 있어 현대 의학적 항암 화학치료를 직간접으로 경험한 군(295명)에서 조사한 '암 치료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37.5% (111명)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62.5% (184명)은 불만족으로 답함으로써 암에 대한 현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Parameter	Number	%
Age	18~23	405	44.0
	24~29	517	56.0
Sex	Male	675	73.2
	Female	247	26.8
Residential area	Urban area	523	56.6
	Rural area	399	43.4
Presence of a cancer patient in the family	Yes	296	32.1
	No	626	67.9

의학적 치료의 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항암 화학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782명 (85%)에서 부작용이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2).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치료가 효과적이나?”는 질문에서는 346명(37.5%)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중 16명(1.7%)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방치료가 암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서는 305명(33%)이 ‘효과적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식사조절 요법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412명(44.6%)에 이르렀다. 그런데 “항암 화학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카이스퀘어( $\chi^2$ )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가족에 암 환자가 있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항암 화학치료가 효과가 높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경계적 유의성( $P=0.059$ )으로 많았다. ‘암의 예방’에 관한 질문에서는 70.8%가 “음식조절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

였고, “한방치료가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458명(49.7%)에 이르렀다.

자신이 암 환자가 될 확률에 있어서 그 확률이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4명으로 18.8%을 보였는데, 특히 흡연자 및 음주자에 있어서 비흡연자 및 비음주자에 비하여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유의하게 많았다( $P < 0.0001$ ). 그리고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보다 자신이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P=0.04$ ).

치료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에 있어서의 안락사에 관한 질문에서는 찬성이 694명(75.3%), 반대가 219명(23.8%)으로 찬성이 훨씬 더 많이 있었으며, 특히 ‘안락사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여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군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성이 의미 있게 많았다( $P < 0.0001$ ).

자신이 만일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 환자로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치료를 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현대의학을 배제한 대체의학, 혹은 증상치료만 받겠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470명(50.8%)으로 약 반수에서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치료 보다는 대체의학에 더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기도원이나 절을 찾겠다.”는 신앙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도 5% 정도에서 관찰되었다. 특히, 항암 화학요법이 효과적이라고 전술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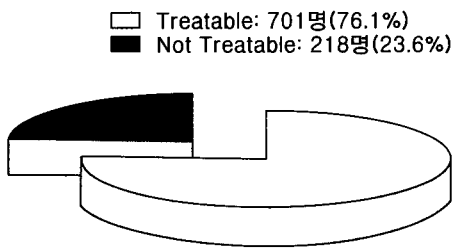


Fig. 1. Answers to the Question "Is Cancer a Treatable Diseases?"

Table 2. Perceptions on Cancer Treatment

	Very rare (<25%)	Low (25~50%)	High (51~75%)	Very high (>75%)
Side Effects of chemotherapy?	13 (1.4%)	125 (13.6%)	529 (57.4%)	253 (27.4%)
Efficacy of chemotherapy	117 (12.7%)	457 (49.6%)	330 (35.8%)	16 (1.7%)
Efficacy of alternative	141 (15.3%)	448 (48.6%)	282 (30.6%)	23 (2.5%)
Efficacy of dietary	64 (6.9%)	348 (37.7%)	358 (38.8%)	140 (15.2%)

여 현대의학적 항암치료를 선택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소견을 보였다( $P < 0.0001$ ).

## 고 찰

본 조사 결과,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의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 않았으나, 암은 치료될 수 있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치료 효과의 평가가 대체 의학, 한방치료, 식사조절요법에서의 평가와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항암 화학치료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응답한 바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항암 화학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항암 화학치료를 경험함으로써 체득된 직접적 교육 효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추측된다. 결국, 본 결과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치료의 올바른 교육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판단된다.

저자 등은 국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암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평가를 찾아 보았으나 매우 드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 김조자 등[5]은 암 환자 교육요구에 대한 환자, 의사, 간호사의 지각 비교를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들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교육한 내용과 환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한 바 있었다. 특히, 의료진의 교육을 받은 후에도 환자들은 자신들이 교육 받은 내용보다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들은 정보나 대중매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 및 간호사가 교육하고자 하는 항목과 암 환자들의 교육 요구 항목이 매우 상이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었으며 그 불신이 본 설문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의사 및 간호사의 편의 혹은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들 및 환자들의 눈높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암 교육을 시행하여야만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요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들에게서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신뢰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본 연구에서 발견된 사실은 현대의학적 암 치료에 관한 교육 효과가 매우 큼을 암시하는 중요한 소견으로 판단된다.

자신이 미래에 암에 걸릴 확률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여 보면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은 식사 등이 건강에 좋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개개인의 막연한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암 교육과 함께 범 사회적 제도의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소견으로 여겨진다.

의사윤리 지침 제 58, 59조에서 안락사는 환자가 원하였던 원하지 않았던 환자의 사망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죽음을 촉진하는 "의사조력 자살(physicians-assisted suicide)"만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지되고 있다[6, 7]. 본 설문연구에서는 이러한 안락사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찬성을 하였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층의 시각이기

때문에 중장년, 노년층을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검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적 암 치료가 획기적인 치료 효율의 개선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암 교육에 관한 노력 및 연구가 절실하고 대중매체에서의 암에 관한 기사, 보도들을 모니터링(monitoring) 하고 잘못된 부분은 되먹임(feedback)하여 시정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암에 관한 올바른 의학지식이 전달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 요 약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서 암에 관한 인식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1,000명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1년 3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성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922부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프로그램에서 기술통계와 카이스퀘어( $\chi^2$ )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과:** 701명(76.1%)의 학생들이 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항암 화학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37.5%), 그리고 항암 화학치료 효과의 평가에서도 한방의학과 대체의학, 식이조절에서의 평가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 중에서 항암 화학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치료의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자신이 암 환자

가 될 확률에 있어서 그 확률이 '높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174명으로 18.8%을 보였는데, 특히 흡연자, 음주자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75.3%(694명)의 학생들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찬성하였으며,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결론:** 가족들 중 현대의학적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하지 않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경험한 학생들에 비하여 항암 화학치료에 대해 의미 있게 낮은 신뢰를 보이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과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암 교육에 관한 노력 및 연구가 절실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ual Report of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02 (Published in 2003)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ual Report of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2001 (Published in 2003)
- 3) Ranson M, Davidson N, Nicolson M, et al. Randomised trial of paclitaxel plus supportive care vs supportive care for patients with advanced NSCLC. Natl Cancer Inst 2000;92: 1074-80
- 4) Billingham LI, Cullen MH. The benefits of chemotherapy in patient subgroup with un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 Ann Oncol 2001;12:1671-75
- 5) 김조자, 박지원, 윤정순, 김옥녀, 권연숙, 이희순. 암환자 교육요구에 대한 환자, 간호사, 의사의 지각 비교 연구. 대한 간호 1989;149:28:53-65
- 6) 의사윤리지침 제 58, 59조. 대한의사협회. 2001
- 7)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futility in end-of-life care: Report of the 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 JAMA 1999;281:937-41